Art

아트인컬처
September 2014

Special Feature /
광주비엔날레 20년
전시 인물 사건 하이라이트
이용우 인터뷰

Artist /
마류밍, 김종구

Memorial /
온 카와라, 날짜 여행자

New Vision /
2014 파이널리스트 선정

光州ビエンナーレ20年

1995 — 2014

GWANGJU BIENNALE

터전을 불태우라

2014광주비엔날레(9. 5~11. 9 총 66일간)는 본전시에 39개국 106명(팀)의 작가가 참여한다. 예술총감독은 테이트모던미술관의 큐레이터 제시카 모건이 맡았다. 주제 '터전을 불태우라'는 1983년 미국 인디밴드 토킹 헤즈(Talking Heads)가 발표한 노래에서 가져 왔다. '불'이 지닌 역사적 맥락과 속성, 불 태우는 행위에 주목하며, 제도권에 대한 저항과 도전, 창조적 파괴와 새로운 출발의 메시지를 연극, 뉴미디어, 음악, 건축, 퍼포먼스, 설치 등 다양한 예술 장르로 담아 낼 예정이다. 참여 작가는 최수앙 홍영인 정금형 임민욱 옥인콜렉티브 이불 성능경 윤석남 등 한국작가 22명을 비롯해 아시아(51), 유럽(34), 북남미(25), 아프리카(4), 오세아니아(1) 등의 대륙별 분포를 보인다. 이들 중 90% 이상이 광주에 처음 참여하는 작가들이다. 주제에 부합하는 36점의 신작도 발표된다. 전시장 외벽을 채운 제러미 델러의 작품과 광장에 설치된 스털링 루비의 작품을 시작으로 각 전시장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서사적 내러티브를 구현한다. 듀오로 활동 중인 엘 우티모 그리또 팀은 전시장 전체에 연기를 모티프로 한 작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중국 작가 류 샤우동, 폴란드 작가 세자리 보자노브스키, 프랑스 작가 피에르 위그 등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작품을 발표한다.

"광주비엔날레는 5.18이라는 역사적 맥락이 매우 명확하다. 나는 이번 전시를 통해 과거의 사건이 현재와 어떻게 연관되고 해석할 수 있는지 긍정적인 의미 생산에 초점을 맞췄다. '터전을 불태우라'는 제목이 불러일으키는 사운드나 움직임의 실천적 역동성을 추구하면서, 현 상태를 '불태우는' 급진적인 정신을 아우른다. 불태우는 것은 파괴를 의미하지만 그 속에서 창조가 일어난다. 불을 시작점으로 축제나 환희의 춤이나 무용, 물리적인 것과 정치적인 이슈, 전통적인 불에 대한 개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할 것이다." / 제시카 모건